

한국 근대 시문학 장르에 대한 검열의 수행 원리와 변동(1919~1935)*

朴志英**

- | | |
|-----------------------------------|-------------------------------|
| I. 한국근대시문학(사상)사와 검열 연구 | III. 결론- 검열과 근대시문학사 구성의
역학 |
| II. 근대 시문학 장르에 대한 검열 수행
원리와 변동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19~1935년까지 한국근대 시문학 장르에 대한 검열의 수행 원리와 변동 양상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1919년 직후 문화통치기에서 1926년 8월 『개벽』의 폐간까지의 기간을, 두 번째로는 카프의 결성 이후 본격적으로 뼈다귀시를 비롯하여 프로시들이 활발하게 지면에서 등장하는 1926년부터 1935년까지 시기에 발생하는 검열 양상의 변화를 추적해 보았다. 또한 시 검열 체제 변화의 기점인 31년 전후 시문학 검열 기준의 표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1919년부터 『개벽』의 폐간이 이루어지는 1926년까지는 검열 당국과 창작 주체들 간의 ‘대치’ 시대였다. 1926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프로시의 시대에는 검열을 통해 뼈다귀시와 감상적 서사시라는 패턴으로 창작 주체들의 인식을 길들이고자 했다. 동시에 독자투고란에 대한 검열을 통해 점차 대중화되어 가는 대중들의 시적 열망을 차단해 간다. 그 결과 이후 1930년 초중반에는 『諺文新聞의詩歌』 등의 문건을 통해 검열 기준의 ‘표준화’를 이루어가는 동시에 동요(시), 민요, 한시 등에 다양한 장르에 대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3589)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검열 대상과 초점의 다변화를 통해서 시 창작 주체들의 인식 전반을 총체적으로 규율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검열의 와중에도 내면화된 프로시와 고도의 상징성을 획득한 저항시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점이 검열 연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학 텍스트의 진정한 생명력이다. 이러한 검열과 주체의 역동적 대결 속에서 현재 우리 시문학사에서 논의되는 시 장르의 전범이 구성되어 간 것이다.

주제어 : 근대 시문학, 장르, 검열, 저항시, 프로시, 장르 전범

I. 한국근대시문학(사상)사와 검열 연구

『개벽』 70호(1926년 6월)에 실리기로 했던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가」는 당대에 검열로 인해 전면 삭제된다. 심훈의 「그 날이 오면」이 수록된 시집인 『그 날이 오면』은 발행 허가를 받기 위해 검열 당국에 제출된 원고의 거의 절반이 삭제 처분을 받아 작가 스스로 발행을 포기한다. 이 두 사건은 납본 검열을 받는 기간 동안 미리 정기 구독 독자들에게 잡지를 우송했던 『개벽』사의 기지¹⁾와 검열 원고를 소장하고 있었던 유족²⁾ 덕분에, 그나마 다행히 그 존재성이 우리 문학사 내부에서 빛나고 있다. 심훈의 시집 『그날이 오면』은 일본 제국주의 검열이 사라진 해방 이후(한성도서주식회사, 1949)에야 출간이 된다.

이러한 검열 상황은 검열자의 손에 의해 사라졌을 수많은 원고들의 존재성을 상상하게 한다. 또 이 두 시처럼 삭제되거나 출판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잡지 게재나 단행본 출간을 위해 수정한 원고의 수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형국은 소위 우리가 정전이라고 불렀던 텍스트의 진위성, 즉 여기에 작가가 진정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온전하게 진술되었는가를 의심을 해야만 하는 비극적 상황을 만든다.³⁾ 그리고 ‘한국 근대문학은 왜 왜소한가’란 화두를 검열 연구를 통해 풀어낼 수 있었다⁴⁾는 한 연구자의 고백에 공감할 갈 수밖에 없다. 이 모두는 검열 체제를 논의하지 않고서는 한국근대문학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⁵⁾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지금까지 한국학계에서는 검열 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1)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참조.

2) 그 검열 판본은 심훈, 『그 날이 오면-심훈문학전집1』(차림, 2000.)에 수록되어 있다.

3) 이상경, 「『조선출판경찰월보』에 나타난 문학작품 검열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17), 2008, 391면, 정근식, 「식민지적 검열의 역사적 기원-1904~1910년」, 『사회와 역사』 64, 한국사학회, 2003, 5면.

4) 검열 연구자 한기형은 ‘한국 근대문학은 왜 왜소한가’란 화두를 검열 연구를 통해 풀어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조종엽 기자, 「염상섭이 막장 소설 쓴 이유는? 일제 검열 연구한 한기형 교수」, 『동아일보』, 2019.7.10.(<<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0/96411607/1>>).

5) 한만수,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비교연구의 필요성」, 『比較文學』 41, 한국비교문학회, 2007, 103면.

그 정신사적 기반에 대한 인식론적 통찰이 끊임없이 수행⁶⁾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학 분야는 번역과 소설과 희곡을 중심으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⁷⁾이다. 시의 경우 『諺文新聞의 詩歌』(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 1931)의 검열 기록을 분석한 연구,⁸⁾ 황석우의 매체 운동과 생애사를 검열 상황과 연관지어 논의한 연구,⁹⁾ 김억과 우치노 겐지의 시를 비교 분석하여, 두 시인의 시집에 담긴 ‘애조’와 ‘저항’의 정서가 당시 식민 권력의 검열시스템에 대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자기검열의

- 6) 지금까지 수행된 검열 연구 성과는 상당 부분 누적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한기형의 위의 텍스트 이외에 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2011; 김영애 외, 『개작과 검열의 사회·문화사』, 박문사, 2022;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동국대출판부, 2010; 김영애 외, 『개작과 검열의 사회·문화사1·2』, 박문사, 2022; 문한별, 『검열, 실종된 작품과 문학사의 복원』,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17; 장신, 「1922년 잡지 신천지(新天地) 필화사건(筆禍事件) 연구」, 『역사문제연구』 13, 역사문제연구소, 2004; 「1926~1932년 월간 《朝鮮之光》의 편집과 경영」, 『대동문화연구』 12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3; 「1920년대 조선의 언론출판관계법 개정 논의와 ‘조선출판물령」, 『한국문화』 4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1927~1928년 조선인의 출판활동과 신문」, 『근대서지』 6, 근대서지학회, 2012; 「『週報 朝鮮之光』의 발굴과 몇 가지 문제」, 『근대서지』 41, 근대서지학회, 2011; 「1930년대 초 『조선일보』의 부침과 잡지 『新朝鮮』」, 『근대서지』 8, 근대서지학회, 2013 외 다수; 정근식, 한기형, 이혜령, 고노 겐스케, 고영란, 『검열의 제국-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 일본의 침략과 열강세력의 언론통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외 다수; 최동호, 『20세기 한국필화문학연구』, 서정시학, 2006; 한만수, 『잠시 검열이 있었습니다-먹칠과 가위질 100년의 사회사』, 개마고원, 2012; 한만수, 『허용된 불온-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학』, 소명출판, 2015 외 다수(필자 가나다순) 자료집으로는 한기형, 『미친 자의 칼 아래서 1-식민지 검열 관련 신문 기사 자료』, 소명출판, 2017; 정진석 편,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2013 외 다수.
- 7) 소설 연구로는 주석 6번에서 제시한 연구자들의 연구 이외에 채호석, 「검열과 문학장 : 1930년대 후반 한국문학에서의 검열과 문학장의 관계 양상」, 『외국문학연구』 27,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07; 손성준, 「검열, 그 이후의 창작 : 심훈의 장편소설로 본 식민지 작가의 검열 대응」, 『동악어문학』 87, 동악어문학회, 2022; 손성준, 「대리전(代理戰)으로서의 세계문학 : 검열된 『김영일의 사(死)』와 번역된 『산송장』」, 『민족문학사연구』 65,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손성준, 「번역문학의 재생(再生)과 반(反)검열의 앤솔로지 : 태서명작단편집(泰西名作短篇集)(1924)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외 다수, 희곡(연극) 연구로는 이승희, 『숨겨진 극장: 식민지 흥행장의 치안과 통속』, 소명출판, 2021 외 다수.
- 8) 한기형, 「근대시가의 ‘불온성’과 식민지 검열-『諺文新聞의 詩歌』(1931)의 분석」, 『상허학보』 25, 상허학회, 2009.
- 9) 정우택, 『황석우 연구』, 박이정, 2008; 이종호, 「『장미촌』의 사상적 맥락과 정치적 함의-『대중시보』와 겹쳐 읽기」, 『반교어문연구』 51, 반교어문학회, 2019 외 다수.

결과임을 입증한 연구¹⁰⁾ 한용운과 오장환 시의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시어들이 갖는 반검열의 수사학을 분석한 논의,¹¹⁾ 프로시에 가해진 검열의 원리와 주체들의 응전 방식을 다룬 연구¹²⁾ 등 이제 막 검열 연구의 중요성이 시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들 모두 검열 체제와 이에 대응하는 주체들의 응전 양상이 한국시문학사상사 연구의 중요한 결절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어렵게 입수한 압수된 텍스트의 실체를 분석하고(정우택), 제국와 식민지 텍스트의 비교를 통해 상호 작용 유무를 검증(한상철)해 내는 등, 여러 방법론을 통해 근대시에 가해진 검열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임’이라는 상징적 연술이 암시하는 것처럼, 시의 상징적 수사학이 검열 우회¹³⁾ 혹은 ‘반검열의 수사학’¹⁴⁾을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은 동의하고 있지만 그 생성에 끼친 검열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나 주체에게 미친 영향력이 발현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들 연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현재까지 진행된 검열 연구가 밝힌 난항과 연관된 것이다.¹⁵⁾ 우선 검열은 그 원칙이 정교하게 드러내지 않으며 자의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또한 많은 분량을 몇 명의 검열관이 검열해야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이 모든 텍스트에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검열은 당대 사회의 동향에 따라 민감하게 변모한다. 사회주의 운동의 전성기였던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사회주의 잡지 『조선지광』, 『비판』에 수록된 텍스트

10) 한상철, 「저항과 검열의 시대, 제국의 금서들 1-김억의 『해파리의 노래』와 우치노 겐지의 『흙담에 그리다(土牆に描く)』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77, 한국비평문학회, 2020.

11) 천영숙, 「1930년대 오장환 시에 나타난 이중언어성과 검열에 대한 고찰」, 『한남어문학』 27, 한남어문학회, 2003; 엄국현, 「식민지시대 검열제도와 『님의 침묵』의 수사학」, 『한국문학논총』 51, 한국문학회, 2009.

12) 박지영, 「프롤레타리아의 재현(불)가능성-검열과 한국 프로시 전범의 형성」, 『반교어문연구』 65, 반교어문학회, 2023.

13) 이는 검열 연구자 한만수의 용어이다. 한만수, 「1930년대 문인들의 검열우회 유형」, 『한국문화』 3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참조.

14) 박현호의 용어이다. 박현호, 「문화정치'기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논리-1920년대 민간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참조.

15) 이러한 점들은 손지연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검열의 사상과 방법-검열 자료집 구축 과정을 통하여」 『한국문학연구』 32,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7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에서 보여주는 삭제의 흔적들은, 거의 그 실제 내용을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의외로 1929년 프로시의 대표작인 임화의 「우리옴바와 화로」는 『조선지광』 2월호에 삭제되지 않고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 역시 『카프시인집』(1931)에만 실리고, 개인 시집 『현해탄』(東光堂書店, 1938)을 발행할 때에는 실지 못한다. 이는 시기와 매체에 따라서 이전에 통과한 텍스트가 검열되는 상황을 보여 준다.¹⁶⁾ 심훈의 「그날이 오면」 역시 시 텍스트로는 「斷腸二首」란 제목으로 잡지 『신생』에 1932년 5월에 실리지만, 단행본으로 출간할 당시 검열에서는 전체 삭제 처분을 받는다. 이처럼 검열 당국은 신문/잡지와 단행본 등 매체별로 검열의 강도를 달리했는데, 신문잡지보다는 단행본의 대중적 파급력이 더 높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또한 발행인의 국적과 발간 국가에 따라서도 검열의 강도는 달랐다. 임화의 투쟁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시 「담(曇)-1927 (사코, 반제디의 기일에)」과 「병감(病監)에서 죽은 녀석」이 모두 경성이 아닌, 동경에서 발행된 매체 『예술운동』(1927.11)과 『무산자』(1929.7)에 실렸다는 점은 이들이 검열에 적용된 제국/식민지의 위계화된 처분 방식을 잘 알고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폐허 이후』(아놀드)나 『장미촌』(미국인 변영서)이 외국인을 발행인으로 내세운 것도 이들이, 출판법보다 상대적으로 검열 수위가 낮은 출판규칙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 연구의 어려움은 분석할 논거,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데 있다. 이것 역시 검열의 원칙적인 속성에 기인한다. 검열이란 표현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적으로 그 언어들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열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텍스트를 넘나 들며, 그 검열 흔적을 찾아 실증의 바다를 뒤지며 다녀야 한다. 다행히 총독부에서 발간한 검열 관련 기록¹⁷⁾들이 존재

16) 매체나 시기에 따라서 검열의 기준이 달랐으며, 동일한 날짜의 신문과 잡지라도 석간과 조간/원고 검열본, 교정쇄 검열본, 납본 검열 전 유통본, 납본검열 후 유통본, 호외 등의 내용이 각각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만수,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비교연구의 필요성」, 『比較文學』 41, 한국비교문학회, 2007, 108면. 『개벽』 판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실제 증명한 논의로는 최수일, 「『개벽』에 대한 서지적 고찰: 소장처와 판본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27, 민족문화사연구소, 2005 참조.

17) 정진석 편, 「해제-총독부의 언론탄압 관련 자료」.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 기사 모음>, <<동방미디어>>(http://www.koreaa2z.com/viewer.php?seq=90#4).

하기는 하다. 검열 당국에 의해 압수 혹은 삭제된 기사는 『조선출판경찰월보』나 『諺文新聞差押記事輯錄』(3책; 조사자료 제29~31집) 등에, 시 장르의 경우는 『諺文新聞의詩歌』 비공개 검열 자료가 보여주며, 그 사례들은 매우 중요한 분석의 논거를 제시한다. 『조선출판경찰월보』(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 1931.)¹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출판경찰은 검열을 통해 결과적으로 작품의 수준을 일정 정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또 『諺文新聞의詩歌』(1930.1.~3. 조사자료 제20집)(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 1931)를 분석한 연구는 이 시기 검열의 결과, “한국의 근대시에서 개인과 국가는 동일한 존재가 되었고”, 이를 볼 때 “한국의 근대문학에 대한 내셔널리즘적 독해의 상당 부분이 식민권력의 강요가 야기한 것일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 의미심장한 문제제기를 한다.¹⁹⁾ 이를 볼 때에도 당대 검열의 실상을 따라가다 보면, 근대시문학사주체들의 인식이 때론 통치자들의 논리에 무의식적으로 공모해 가기도 하고 동시에 통치 체제의 균열의 시도하면서 스스로 저항적 담론을 창출해 내기도 한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²⁰⁾

본 연구는 1919년~1935년까지 시 검열 양상을 논구하고자 한다. 그 이유로는 잘 알려진 대로, 우리시문학사에서 이 기간이 『창조』(1919) 등 근대적 문예동인지 출간과 더불어, 근대시문학의 이념과 형식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전에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 매체에 실린 저항적 시가 양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본격적인 근대 문학 텍스트라 보기 어렵고, 『학지광』 등 유학생 매체에도 근대자유시가 수록되었지만, 이들 매체의 생산 공간이 식민지 제국인 일본이었던 까닭에 그 검열 통제의 양상을 일별하여 논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

18) 『조선출판경찰월보』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이 검열업무의 정리 및 체계화와 ‘집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월간으로 발행한 비밀자료이다. 1928년 9월부터 1938년 12월까지 총 123호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그중 111개호가 존재한다. 이상경, 위의 글, 박현호, 손성준, 「한국 근대문학 검열연구의 통계적 접근을 위한 시론 -『조선출판경찰월보』와 식민지 조선의 구텐베르크 은하계」, 『외국문학연구』 38,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10 참조.

1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경, 앞의 글, 한기형, 앞의 글 참조.

20) 한만수는 “검열제도가 도입되고, 검열지침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들이 점차 세밀해진 것은, 사상통제의 필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조선 민간주체들의 저항 및 검열우회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분석한다. 한만수, 「식민지시기 문인들의 검열우회 유형」, 『한국문화』 39,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227~254면 참조. 신문사 기자들 또한 반검열의 수사학을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한다. 박현호, 앞의 글 참조.

였다. 또한 더 이상 강압에 의해 조선어가 문학어로 사용되지 못하는 기점인 1938년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²¹⁾은, 카프의 해산을 기점으로 주요 검열 대상이 소거되면서 “30년대 후반은 1935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²²⁾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과 카프 1차 검거 사건 이후 이미 프로 문단이 위축되기 시작한다는 주장처럼 이미 1930년대 초중반부터 검열의 흔적이 점차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그 시기 내부에서도 1931년을 하나의 기점으로 삼아 시기적 변화 양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만주사변이 발발한 1931년은 주요한이 말한 검열 대응 삼단계 중 세 번째, “압수 아니 당하기를 힘쓰는 때”²³⁾이자, 정진석이 말한 “친일강요기(1931)”의 시작 지점이다.²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의 연구는 검열과 피검열자의 대결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 자기 검열, 혹은 내면화, 그리고 상징 체계의 분석이라는 좀 더 복잡한 논의의 맥락이 필요한 것이다.

-
- 21) 이 시기에는 “텍스트에 대한 통제보다는 미디어에 대한 물적 통제, 그리고 텍스트를 생산하는 작가들에 대한 인적 통제가 중심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 시기의 검열은 이전의 체제와 내용이 달라진다. 정근식, 「식민지 전시체제하에서의 검열과 선전, 그리고 동원」, 『상허학회』 38, 상허학회, 2013, 224면.
- 22) 1930년대말 문학과 검열장에 대한 연구에서 채호석은 “1920년대나 1930년대 초반이라면 검열의 구체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이후에는 이미 자기 검열로 인해 검열의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채호석, 「검열과 문학장: 1930년대 후반 한국문학에서의 검열과 문학장의 관계 양상」, 『외국문학연구』 27,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07.
- 23) 당시 기자였던 주요한은 검열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 시대”가 있다고 한다. “첫 시대는 압수당하는 것을 장하게 여긴 때요, 둘째 시대는 압수당해도 부득이로 생각한 때로, 셋째 시대는 압수 아니 당하기를 힘쓰는 때다. 미구한 장래에는 압수 아니 당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올 것”이라 한다. 주요한 「기자생활의 추억(속)」, 『신동아』, 1934, 75쪽.
- 24) 그는 검열의 변동 양상에 따른 시기 구분으로 1) 감정적 독립 갈망기(1920~1924), 2)이론투쟁시기(1924~1929), 3)합법적 논쟁시기(1929년 이후), 4)친일강요기(1931년 이후)로 나눈 바 있다.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일본의 침략과 열강세력의 언론통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40~48면 참조. 박헌호와 손성준의 분석에 의하면, 『월보』는 1~39호를 기간으로 하는 1단계와 40(31.12.)~95호 사이를 기간으로 하는 2단계, 그리고 96호(36.8)~123호를 기간으로 하는 3단계로 분할이 가능하다. 1932년 3월 1일 만주국의 건국이 선언되는데 그 직전인 40호(발행은 32.01월)부터 ‘2단계적 추세’가 시작되어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진행되었다고 한다. 박헌호·손성준, 「한국 근대문학 검열연구의 통계적 접근을 위한 시론 -『조선출판경찰월보』와 식민지 조선의 구텐베르크 은하계」, 『외국문학연구』 38,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10, 211면.

이 시기까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해도, 식민지 시대 시(가) 문학에 대한 검열 연구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연구자들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간 검열 연구를 위해 우선 이 기간의 매체별, 시기별 텍스트 검열 기록을 일별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검열 연구의 중요성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근대 시문학 장르에 대한 검열 수행 원리와 변동

1. ‘대치’의 시대, ‘문화통치’의 허구성(1919~1926)

- 전방위적 매체 검열과 검열 기준의 구성

무단통치기에 검열 당국은 매체를 막론하고 반포금지, 압수, 정간 등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여, 주체들의 발화 자체를 막는 방식을 택한다.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검열 당국은 더 이상 이러한 금지와 압수만으로는 조선인들의 언어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는 소위 ‘문화통치’가 시작되고, 시문학 장 역시 급격한 변화하게 된다. 『동아일보』·『조선일보』·『시대일보』 등 일간지와 『개벽』 등 종합지, 이외에도 『창조』·『폐허』·『백조』·『장미촌』 등의 동인지와 『조선문단』 등의 문예잡지가 발간되면서, 그 지면에 많은 문예 작품이 실리고, 김소월, 이상화, 한용운 등 근대 시인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만을 보고 이 시기에 언론의 자유가 증폭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검열 상황을 살펴보면 기대만큼 그 경간이 넓어진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 초반 신문을 검색해 보면, 3.1 운동 당시와 직후 “불온문서” 즉 삐라(전단지)를 압수하였다는 기사가 많이 나온다.²⁵⁾ 이 시기 조선인들의 정치적인 의지는 많은 불온문서를 가져왔고, 일본 검열 당국은 이를 쫓는 데 급급하였다. 일간지의

25) 예를 들어 1920년대 애국부인회 사건을 취재한 기사에 의하면 이들이 부과한 죄목 중 중요한 것은 “조선독립에 관한 불온문서를 만히 인쇄하여 이것을 널리 조선인에 배부”한 것이었다. 「愛國婦人會事件(애국부인회사건)」, 『동아일보』, 1920.04.24.

창간이 허용되고, 『개벽』, 『조선지광』 등 계몽성과 정론성을 갖춘 매체들이 등장한 것도 그들이 “삐라”라는 법역 바깥의 텍스트를 통제하고, 그것이 가능한 범주 내부로 미디어를 끌어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²⁶⁾ 오히려 이 시기는 제국이 식민주체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해 가는 시기로, 1920년대 초반은 검열 당국과 미디어의 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에서 팽팽하게 대치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이들 매체에 대한 압수 기사도 신문 지상에 자주 등장한다. 『신천지』, 『신생활』 필화 등²⁷⁾ 굵직한 검열 사건이나 『개벽』이 당한 ‘6년간 40회 이상의 압수’²⁸⁾ 상황은, 당대 엄중한 검열 상황을 보여 준다. 이러한 와중에 많은 시 텍스트들도 검열된다. 『개벽』의 삭제 기사 목록 중 문학 텍스트를 살펴보면, 시가 7편, 소설이 7편, 수필이 7편, 희곡이 1편, 비평과 문학론이 5편²⁹⁾이다. 이러한 점은 시 장르가 다른 장르 못지 않게 주목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검열 당국은 1920년 『개벽』 창간호부터 ‘압수’라는 강력한 검열 처분을 수행한다. 여기에서도 시 텍스트가 두 개나 삭제 처분을 받는데, 창간호가 압수당한 이후에 발행한 임시호를 살펴볼 때, 삭제된 텍스트 중 하나는 김기전의 3행 단행시 「금쌀악」, 「옥가루」³⁰⁾이다. 이 시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시어는 “家屋家屋”과 “失失失失”이

26) 이러한 점은 이해령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해령, 「식민지 검열과 식민지-제국 표상-『조선출판경찰월보』의 다섯 가지 통제표가 말해주는 것」, 『대동문화연구』 7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참조.

2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신, 「1922년 잡지 신천지(新天地) 필화사건(筆禍事件) 연구」, 앞의 책; 이와 연관된 당대 문단 상황에 대해서는 박현수, 「1920년대 전반기 미디어와 문학의 교차: 필화사건, ‘문예특집’, ‘문인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74,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20. 이 사건과 당대 출판 운동에 대해서는 김현주·조정윤, 『『신생활』 이후의 신생활사-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계열 대중출판운동의 편린』, 『대동문화연구』 12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2 참조.

28) 최수일, 앞의 책, 44면.

29) 최수일, 「식민체제와 〈개벽〉의 역학」, 『개벽 연구』, 앞의 책, 57면.

30) 『개벽』 창간호는 원본 3책과 사본 2책이 남아 있다. 2회 압수를 당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수일, 『개벽 연구』, 85면 참조. 압수된 후 삭제된 기사 중 시 텍스트는 아래와 같다. (국사편찬위원회 판본이다.) 「금쌀악」 전문: 北風 寒雪 가마귀 집 귀한 줄 깨닫고 家屋家屋 우누나./ 有巢不居 저 | 가지 집 일흔을 부끄러 可恥可恥 짓누나./ 明月 秋堂 귀뚜라 집 일흔가 저히서 失失失 失 웨놔다. 「옥가루」 전문: 黃昏南山 부흥이 사업 부흥하라고 復興復興하누나./ 晚山暮夜 속독시

다. 이 시어들은 “식민”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외에 전면 삭제된 차상찬의 한시 「慶州懷古/南漢山城」이나 표지의 호랑이 그림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³¹⁾ 이 두 경우는 제목부터 조선이라는 국가를 환기시킨다. 이렇게 과감한 매체 발간 주체들의 행동에 ‘식민’의 형상을 용인하지 않았던 검열 당국은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신생활』(1922) 필화 사건이 말해 주는 것처럼 1920년대 초반 검열 당국이 주목한 대상은 아나키즘 등 이념적 성향의 매체들이다. 그들은 이제 막 발흥하기 시작한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일본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아나키즘 운동이 조선에 반입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이 중에서도 일본에서 아나키즘 단체에서도 활동했던 경력에 요시찰 대상이었던 황석우³²⁾와 연관된 매체는 대부분 검열의 대상이 된다. 『폐허』(1920)는 물론 『장미촌』, 『대중시보』(1921.5.),³³⁾ 『근대사조』(1916),³⁴⁾ 『삼광』,³⁵⁾ 『조선시단』(1928)³⁶⁾은 황석우

사업독촉 하여서 速速速速 웨이네./驚蟄만한 개구리 사업 저다하겠다 皆皆皆皆 우눛다. 이외에 1호에서 압수, 삭제 기사 6개이다. 이는 『『개벽』 압수·삭제기사 목록』, 위의 책, 113면 참조.

- 31) 『천도교청년회팔십년사』(798면)에 실려 있는 『개벽』 창간호 본호의 표지 사진(최수일, 앞의 책, 1면 참조).
- 32) 『동아일보』 1921.11.25., 3면 기사에 의하면, 그가 동경에서 불온문서를 배포하다가 체포되었다고 한다. 「文化主義運動으로 선던문서가 불온하다하여 원종린 등 삼인을 검거 취조」, 『동아일보』, 1921.11.25.
- 33) 신문에 의하면 『대중시보』는 일본에서 압수된 후 여러 차례 압수된다. 『동아일보』, 1921.5.16./8.10일자, 2면 참조.
- 34) 황석우는 1916년 2월 『근대사조』 200부를 가지고 귀국하여 국내 학생들에게 배포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었다. 불온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매·반포가 금지되었던 것이다.) 「朝鮮人概況」(1916. 6. 30日 調), 『外務特殊文書』 1, 783쪽; 정우택, 「『근대사조』의 매체적 성격과 문예사상적 의의」, 『국제어문』 34, 국제어문학회, 2005.
- 35) 1919년 창간호가 동경에서 발행된 잡지 『삼광』은 3.1 운동이라는 국내 정세로 인해 “주위의 형편과 내외의 사정”(사고)을 이유로 다소 늦게 2호가 12월 발행된다. 이종호, 「『청춘(靑春)』이 끝난 자리, 계몽과 개조의 사이에서 - 잡지 『삼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 36) 『조선시단』은 창간호부터 압수되어 임시호로 발간된다. 「出版警察概況-差押 削除 및 不許可 出版物 目錄(10月分)」, 『조선출판경찰월보』 2호, 1928. 28년에 창간한 『조선시단』은 1930년 1월까지 7호를 발간하고 한동안 휴간하였다가, 1934년 9월에 8호를 속간하였으나 곧 종간되고 만다. 정우택, 위의 책, 30면.

가 자신의 사상을 문학적 활동과 결합해 내고자 한 매체 운동의 일환으로 발행한 것들이다. 당시 아나키즘 운동과 상징주의의 연관성은 세계적인 조류였고, 조선 내부에서도 상징주의는 “단순한 시의 기법이나 형식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근대’에 대응하는 ‘시대정신’으로 또 당대의 예술사조뿐 아니라 사회현실에 대한 ‘전복적 동력’으로 소개 수용”³⁷⁾되었다. 검열 당국은 이러한 면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³⁸⁾

이처럼 1920년대 문화 통치가 허구적인 이유는 당대 매체에 대한 검열이 그 이념적 성향과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소위 순문학을 지향하는 동인지에 대해서도 검열이 행해졌으며 문학 동인들도 이를 예민하게 의식했다. 백조 동인이었던 회월에 의하면, “잡지를 내고자 하는 경우 우선해야 할 것이 먼저 게재할 원고를 편집후기까지도 한 장도 빠지 말고 묶어 면수를 명기한 다음 따로 허가원을 써서 경찰서 고등계에 제출하는 일이었다.”고 한다.³⁹⁾ 이러한 고백은 매체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검열이 얼마나 중대한 걸림돌이었는데를 보여 준다. 또한 홍사용은 『백조』 창간호(1922.1)의 「육호잡기」 마지막 글에서 “금번호에 빙허씨의 「전면」을 실으랴 했더니 (중략) 얻더튼 못내놓게되었사오니 여러분에게도 섭섭하기 그지없거니와 작자 그분을 뵈옵기에도 미안다사로소이다”라면 그것이 “부자유”라고 검열 상황을 상징적으로 전한다.⁴⁰⁾

37) 정우택, 『황석우 연구』, 앞의 책, 92면.

38) 이상화 시에 드러난 일본 아나키즘 사상의 편린은 그가 검열을 피해 상징적 수사학을 통해서 저항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던 고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병관, 「이상화의 시에서 ‘생명(生命)’-대정(大正)기 일본의 생명주의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와 예술』 30, 한국문화와예술연구소, 2019; 「정열과 반역의 시, 이상화-아나키즘의 자장」, 『반교어문연구』 36, 반교어문학회, 2014.

39)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 『현대문학』, 1959.11. 193면. 문병욱, 「白潮」同人의 詩意識에 관한 考察(Ⅰ), 『논문집』 13(1). 성심여자대학교, 1982. 그런데 이러한 검열은 한 차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소위 고등계라는 곳에서 여너 날을 묵었다가 원고 뭉치가 돌아오면 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기 위하여 이번에는 도경찰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것을 또다시 경무국에 가져가 마지막 재가를 얻어야 했다. 그 사이 발행인이나 편집인은 번번히 출세 명령을 받고 가서 조사·심문에 시달렸고, 원고는 수정 또는 삭제되거나 솟제 송두리째 몰수당하기도 하였다 한다. 그러는 사이에 수개월이 지나가 동인활동은 위축되고 동인지도 정기간행물로서의 체 구실을 다하지 못하게 되며, 잡지사, 실무자는 모두 기진맥진하게 마련이었다. 김용직, 「〈백조〉 고찰」, 『국문학논집』 2,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1968, 103면.

문인의 회고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나 「금수회의록」 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동인지 『폐허 이후』⁴¹⁾ 필화 사건이다. 이 매체가 압수된 1924년은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직후 조선인 대학살과 관련된 기사에 대한 통제가 심하였고, 그만큼 매체에 대한 검열이 예민하였던 시기이다.⁴²⁾ 우리가 구득할 수 있는 영인본이나 〈현담문고〉 판본에서는 그 삭제의 흔적이 없지만, 당대에는 “「폐허 이후」라는 문예잡지가 발간되었다함은 이미 보도한 바어니와 재작일에 돌연히 발매금지를 당하였다더라”⁴³⁾라는 기사가 있다.

다행히 잡지 『폐허 이후』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이 검열 현황이 서술되어 있다. 이 연구는 1924년 2월 1일 발행된 검열된 판본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잡지의 〈편자의 말〉 추기에 의하면, “1월 1일에 기어코 발행하랴고, 원고 검열도 맞치 안고, 영국인 아-놀드군의 명의를 빌어서 발행한 까닭에, 불의에 발매금지를 당하였든바, 이제야 임시호를 발간케 되었다. 따라서 제2호는 3월 1일이나 발행케 될 뜻하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본지 제23호로부터 제50호까지의 김운정군의 희곡 「기적불새」와 제119호로부터 제122호까지의 상순군의 시 「폐허의 낙엽」 일부급 「폐허행」은 삭제”라는 구절이 있었다 한다.⁴⁴⁾ 다음은 이 구절에 의거

40) 「육호잡기」, 『백조』 격월간행, 1922.1. 142면. 『창조』 9(1921.9.)에도 김동인의 「배짜라기」 중간에(10면) 글자를 지운 복자 흔적이 보이고 2호에는 “여러분의소 다 아시는바와가치, 날로날로 급박하여 오는 우리 사정은 도저히 이 둘째호가 날업시 여러분의 손에 드러갈 운명을 주지 않는 것 같소”란 사고가 있다. 「여러분의 고함」, 『창조』 1권2호, 1919. 3.20. 60면. 그러나 〈현담문고(구 아담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동인지 『창조』 원문에 실려 있는 시 텍스트를 보면 적어도 삭제의 흔적이 없다. 이렇게 그 검열의 과정에서 어떤 텍스트가 삭제 판정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납본 후 수정 지시가 내려오면 이를 이행 후 다시 절차에 맞춰 검열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호의 동인지에는 여러 판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영인본 등 판본들이 실제 어느 판본인지 확증할 수 없다면, 검열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

41) 김병익, 「문단의 반세기(21) 검열과 필화」, 『동아일보』 1973.5.11. 최동호, 앞의 글.

42) 『조선출판경찰월보』 2호(1928)에는 그 해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전반에 대한 검열 기록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예시 중 “4. 기타 치안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기사 하위 항목에 예2. 시사에 관한 무제한 풍설을 유포하고 인심을 동요케 하는 우려가 있는 기사” 아래 예시에 “시사에 관한 무제한 풍설을 유포하고 인심을 동요케 하는 우려가 있는 기사” 아래 “1. 진재(震災)를 틈타서 선인학살되었다. 운운. (진재 당시 각 신문)”이 예시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도 그러하다.

43) 『조선일보』, 1924.1.9.

44) 그러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영인본 『폐허 이후』 텍스트(『韓國雜誌叢書』, 중앙문화사, 1968.와

해 찾아본, 삭제된 오상순의 『폐허행』의 마지막 구절이다. 이 구절은 현담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에서 찾았다.

버들! 오- 버들!/너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동양 예술의 상징!/조선의 사람과 자연의 혈맥을 통하여/영원히 유구히 흘러가는 선의 예술의 상징!/목숨은 짧다. 그러나 예술은 유구하다.

- 『폐허이후』1(현담문고 판본, 121면), 1924.1.

이 시에 서술된, “조선의 사람과 자연의 혈맥”이라는 구절은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을 일국가로 상정하고 서술된 것이므로 식민지 검열 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을 것이다. 함께 삭제된 운정 김정진의 희곡 『기적불새』가 빈궁을 형상화하는 신경향파 문학의 계보에 위치하고 있는 텍스트라고 한다면, 이와 함께 이 시의 명명법이 『폐허 이후』 필화 사건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역시 1924년 6월 발행된 이학인의 시집 『무궁화』가 “발행되자마자 내용이 불온하다고 일제에 압수된 최초의 시집으로 25년 1월에 겨우 재판을 낸”⁴⁵⁾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무궁화’ 역시 당시에 일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⁴⁶⁾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검열 당국은 3.1운동 직후 확산되고 있었던 저항의 기운을 막기 위해서는 『개벽』 창간호의 압수 처분이 보여주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국가의 형상이나, ‘식민지’라는 상징성을 지우는 데 골몰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열 당국은 점차 저항적 성격의 시가에 대한 검열의 수위를 조절해가

『薔薇村 [外]』, 서울: 寶林出版社, 1982. 판본)를 살펴보면, 후반부가 일부 뜯겨져 나가 판권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담문고>에는 다행히 판권지가 존재하는 판본이 있는데, 검열 처분에 따라 삭제 후 발간된 2월 1일 발행본이 아니라 이는 1월 발행본이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쉽게 구득할 수 있는 판본은 검열 이전 판본인 것이다. 최근에 나온 『공초 오상순 전집』에는 이 시의 원문이 실려 있는데, 이 역시 현담문고 판본을 참조한 듯하다. 이렇게 검열의 흔적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한국 영인본 출간의 관행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수일과 한만수의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최수일, 앞의 책, 한만수, 앞의 글 참조.

45) 「시집 40년 전사」, 『경향신문』, 1971.9.22.

46) 1933년 <무궁화동산 사건>이 말해주는 것처럼 무궁화가 국화로 법제화된 것은 해방 이후이나, 식민지 조선에서도 무궁화가 조선을 대표하는 꽃이라는 인식이 암암리에 공유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석, 『無窮花(國花)에 對한 小考』, 『논문집』 16, 대구교육대학교, 1980 참조.

면서, 그 기준을 구성해 나간다. 우선 주체들의 저항 의기가 드러나는 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수위를 강화해 간다.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 모음> 중 시(가) 텍스트를 추려보면, 1920년 원산 현아생의 시(『동아일보』) 이외에는 1925년에 박은식을 추모하는 이광수의 시 「곡(哭) 백암(白巖) 선생」(『동아일보』, 1925.11.05.) 외 1 편, 그리고 1926년에는 순종 황제의 승하 이후에 쓴 심훈의 시 「통곡 속으로」⁴⁷⁾(『시대일보』, 1926년 05월 16일), 이완용의 죽음을 보고 쓴 한시 「이후작(李侯爵)의 만가(輓歌)」(『조선일보』, 1926.2.17.)와 4편이 전면 삭제된다.⁴⁸⁾ 이 시들의 경우, 당대 사회정치적 상황과 연관되어 충분히 그 의미가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검열 당국이 판단한 것이다.

6·10만세운동이 일어난 1926년 정치적 상황은 검열 당국에 위기 의식을 가져왔고 『개벽』의 폐간이라는 악수를 두면서 언론 통제의 강도를 극도로 높이게 되는데, 그 직전부터 이미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70호)와 이호의 「행동의 시」(72호)가 전면 삭제되는 검열 상황이 발생한다. 전자의 시가 갖는 시적 울림과 효용성은 더 부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행동의 시」의 경우는 “관망에서 응시로/인식에서 투쟁으로”, “街頭로/민중에게로/행동으로 투쟁으로”란 시 구절이 나온다. 전자의 시 제목에서부터 다가오는 “빼앗긴”의 강한 내포적 의미적 파장과 더불어, 후자의 시에서 나오는 “투쟁”이라는 직설적 언술 모두, 점차 이념적 성향이 강화되어 가면서 당국과의 대치 의지가 강렬했던 당대의 상황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검열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미 3.1 운동 당시 옥고를 치루며 요시찰인물이 된 심훈의 「통곡 속에서」가 전체 삭제된 시기인 1926년 5월, 회동서관에서 발행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검열에 통과한 듯하다. 이 엄혹한 시기에 이 시가 통과된 것은 이 시의 정조가 님의 침묵을 싸고 도는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노래”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여성적 어조는 검열 우회의 전형적 수법이다. 승려의 시집이기 때문에 불교적 내용이 주조를 이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925년 대홍수로

47) 이 지면을 소개한 『압수기사모음』의 해제에 의하면, “4월 29일 돈화문 밖에서 썼다는 이 시를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언론과 세상」에는 <애원의 곡, 각성>으로 분류하였다”고 전한다.

48) 이 시가들은 대체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에서 삭제되기 이전 판본으로 그 원문 검색이 가능하다.

처참한 식민지 국토를 바라보면서 창작한, 이 시집의 마지막 시 「독자에게」의 “밤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운악산은 무거운 그림자는 엮어감니다/새벽종을 기다리면서 붓을던집니다.(을축 8월29일밤 씌)”란 구절의 뜻을 검열 당국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일까?

대홍수 이후 순종의 승하와 이완용의 죽음, 그리고 6.10 만세 사건으로 들끓는 여론 정국을 통제하기 바빴던 검열 당국의 손이 『조선일보』 등 신문이나 『개벽』 등 요주의 매체에 머물러 있었던 탓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검열 기준이 구성되어 가던 시기, 그 수행의 미세한 불균형 속에 시집 『님의 침묵』(회동서간, 1926.5.)은 검열에 통과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길들이기와 차단: 프로시 검열과 대중화의 경계(1926~1931)

우리 시문학사에서 1925년 카프의 결성 이후인 20년대 중후반을 보편적으로 프로시의 시대로 본다. 카프가 조직되고 1927년 경 목적의식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에서는, 본격적으로 계급적 의미의 ‘프롤레타리아’나 ‘뿌르쵸’ 등이 등장하는 시가 실리기 시작한다. 김창술의 「지형을 뜨는 무리」(『조선일보』, 1927.6.22.), 「무덤을 파는 무리」(『조선일보』, 1927.6.26.), 「전개」(『조선일보』, 1927년 8월 12일)⁴⁹⁾ 등이 당시 이 지면에 연속적으로 실린다.

그런데 프로시에 대한 검열 양상을 찾아 보면, 의외로 표면적으로는 프로시에 대한 검열의 흔적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프로시가 주로 실렸던 매체는 『개벽』, 『조선일보』, 『조선지광』인데, 우선 『개벽』에 실린 신경향파의 시 대부분이 삭제되지 않았다. 『개벽』에 실려 있던 석송 김형원 「무산자의 절규」(『개벽』 1921.6.), 팔봉의 「백수의 탄식」(『개벽』 1924.6.) 등 아나키한 이념을 주창하는 신경향파 시의 주요 작품들은 삭제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실려 있다.⁵⁰⁾ 이러한 점을 볼 때, 1926년 이전의 검열 장에서는 텍스트의 내용과 더불어 ‘주체’의 이념적 성향을 중시하면서 그 기준을 수의적으로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김창술, 김여수(박팔양), 유완순,

49) 김성윤, 위의 책. 19면.

50) 최수일, 「『개벽』의 ‘현상문예’와 ‘신경향파문학」, 『상허학보』 20, 상허학회, 2007, 54~55면.

권환 등 소위 뼈다귀시들이 실렸던 『조선일보』에서도 마찬가지이다.⁵¹⁾

또한 임화의 대표작인 「우리옴바와 화로」도 복자 처리 하나 없이 온전한 상태로 『조선지광』 지면에 실린다.⁵²⁾ 잘 알려진 대로, 카프 대중화 논쟁의 도화선이 된 단편서사시 계열의 시 창작 주체들은 검열을 피해 계급적 전망을 대중들에게 아지 프로하기 위해서 ‘가족 서사’를 활용해 당대 봉건성과 대중적 감수성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여성 화자’의 활용은 식민지 검열을 우회하는 데 유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프로시인들은 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늘 검열 당국을 의식해야 했던 프로시의 경우는, 1920년대 중후반에 이미 검열 우회의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⁵³⁾

그러나 이렇게 수치상 표면적으로 드러난 프로 시의 검열 현황이 그 강도와 깊이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⁵⁴⁾ 그 이유는 다층적이다. 『조선출판경찰월보』3호(1928.10.) 기록에서는 『개벽』이 “인심을 흑란시키고 통치 상에 유해하고 안녕질서를 방해하는 바가 크다고 인식하여” 이 매체를 발행 금지를 시켰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그 매체 혹은 텍스트가 인심을 흑란, 즉 공감을 일으켰는가였다. 이를 볼 때 당대 프로시의 경우, 이 시의 투박한 형상성, 이념적 경직성을 드러낸 패턴화된 시어의 활용이나 구호의 남발 등 그 문학적 형상성의 한계가 오히려 검열

51) 특히 김창술은 25년에는 1월, 2월, 3월, 5월, 6월(4회), 10월, 11월(2회), 12월(1회), 26년, 1월(3회), 2월(4회), 4월(2회), 11월, 27년 3월, 5월, 6월, 7월까지 지속적으로 시를 게재한다. 1925년 12월 17일부터는 「을축문단개관」을 연재하는 등 문예평론과 수필 등을 연재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작품 연보는 최명표, 「부록」, 『김창술시전집』, 신아출판사, 2014. 참조.

5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지영, 앞의 글 참조.

53) 이러한 검열 상황에서도 프로 시인들은 매체별 검열의 위계화나, 제국과 식민지 검열시스템의 차별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형상화하려 시도했다. 이들이 검열 체제에서 구하고자 한 형상은 전세계의 노동자가 하나되어 제국주의와 싸우는 프롤레타리아 세계주의와 죽음을 불사하고 감옥에서도 싸우는 프롤레타리아의 거룩한 형상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지영, 앞의 글 참조.

54)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기록에서 시 장르의 검열의 물리적인 횟수가 정론성 있는 다른 장르들보다 적었던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면에서 시 장르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프로시의 경우는 특히 시기별로 1926년 폐간되기까지는 『개벽』에 그 이후에는 『조선일보』에, 그 다음은 『조선지광』으로 주요 게재 지면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 지면의 수 자체가 지극히 한정적이었다. 그래도 1926~1928년까지는 『조선일보』에 2~4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실렸기 때문에, 그 텍스트의 수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박지영, 위의 글 참조.

당국으로 하여금 이 시가 갖는 대중들에 대한 파급력이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등한시하게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온갖 불온한 정론성을 띤 글들을 처리하기에 바빴을 상황 역시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정론적인 내용에 가해지는 숨막히는 검열로 인해 막힌 주체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데 문학 텍스트의 존재성을 활용한 것일 수도 있다. 『조선일보』에 실린 김창술과 유완희의 시들이 삭제 처분되지 않았던 것은 황석우의 고난과 비교할 때, 그가 아직 대중적 영향력이 적은 신진 시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점을 활용한다면 검열 당국은 대중적 호응에 대한 큰 위험부담 없이 통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물리적으로는 발행 정지가 잦았던 당대 『조선일보』가 처했던 난국을 참조하면, 일간지 검열의 시간적 촉박함이 미쳐 그 시야가 시에까지 닿지 못했던 탓⁵⁵⁾도 있다고 볼 수 있다. 1926년부터 1929년 『조선일보』의 압수 건수는 월평균 1건 이상이며, 발행금지 처분까지 더하면 『조선일보』의 검열 상황⁵⁶⁾은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현실성있는 이유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촉박한 시간에도 심훈의 시는 삭제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대로, 시국 상황과 주체에 따라 검열의 수위가 조절되었던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로 검열은 프로시의 장르적 전범을 조율해 간 것이다.

시 장르 검열이 집중적으로 발휘된 것은 1928년을 기점으로 해서이다. 20년대 후반 시국 상황을 고려해 보면, 1925년 치안유지법의 시행과 조선공산당 창당 이후 여러 차례의 검거 사건(25년, 26년, 28년), 1926년 순종황제 사망, 6·10 만세 운동, 정우회 선언, 1927년 신간회 결성, 1928년 4월 광주학생운동의 시초가 된 격문 배포 사건 및 6월 광주고보의 동맹 휴교, 9월 원산총파업의 계기가 된 문평제

55) 당일 제작한 기사를 바로 인쇄하여 독자에게 배포해야 하는 신문의 특성 때문에 신문사는 제작 중인 신문을 검열 당국에 납본하는 동시에 인쇄소에 넘겨 인쇄가 진행되도록 했고, 검열 당국 역시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 말로만 삭제하고 인쇄를 계속하여 배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에 압수처분을 당하면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호외를 발행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민주, 「일제 검열에 대한 조선어 민간신문의 대응양상 연구」, 『한국언론학보』 62(1), 한국언론학회, 2018. 참조.

56) 이민주, 위의 글, 74면.

유공장의 파업 등 저항 주체들의 움직임이 점차 조직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인 1928년 『조선출판경찰월보』에는 두 개의 시전문 매체의 압수처분 기록이 등장하는데, 그 대상은 『신시단』과 『조선시단』이다.

식민지 시대 검열에 대한 회고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신시단』에 대한 검열 처분도 당대에 잘 알려진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진주 신시단사에서는 창간호를 발행코저 원고를 모집하여 총독부에 출판허가원을 제출하였든바 거 5월7일부로 창간호 발행금지를 당하고 바로 임시호 발행 준비 중에 있스며 미주 아이오와주 이 대학 김태선씨의 주선으로 미주 신시 크라브와 연락하여 외지에까지 대발전을 기하든 중 신시단은 금반 창간호가 돌연히 금지당함을 말하서 만흔 지장이 있다더라(진주)”⁵⁷⁾란 기사가 있다. 이 잡지⁵⁸⁾는 2호의 추가분도 불허가 처분을 받는데, 다시 발행한 임시호의 사고에는 “창간호가 불허가된 것은 큰 유감”이라면서 “이학인씨의 신시연구는 창간호에 「시란무엇인가?」를 실고 2호에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실을 예정이든 것이 창간호가 불허가되는 판에 「시란무엇인가」가 빠진 것은 유감입니다.”⁵⁹⁾란 구절이 있다.

1권 2호(창간호 임시호)의 지면을 살펴보면, 『조선출판경찰월보』3호에 기록되어 있는 추가분에서 삭제된 시 「젊은이의 불만」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출판경찰월보』에 기록되어 있는 삭제 시를 살펴보면, “잊기 어려운 지난 봄! 퇴폐된 경복궁에도 봄이 왔다. 아직도 빼앗겨 기근에 우는 군중의 얼굴에도 꽃이 피었다.”는 구절은 순종의 죽음과 6.10 만세 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구로 보인다. 후반부에 “우리나라를 복광하고자 벗은 조국을 위해 유린된 군중을 위해”란 구절은 노골적으로 독립을 희구하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기록에는 없지만, 변추풍(邊秋風)의 시 「노동자의 장사(葬事)」의 앞부분 19행이 삭제되어 있다. 제목을 보면 이 시가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다루고, 암묵적으로 이념적 내용을 아지프로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 김찬성의 수필 「봄밤의 비애」가 전문 삭제, 그리고 김병호가 쓴

57) 『동아일보』, 1928.5.19.

58) “문학지 『신시단』, 『백운』 기타 수없는 잡지와 문학작품이 압수 삭제 되어져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회고가 있다. 백순재, 「측면에서 본 신문학 60년(11)~검열과 필화」, 『동아일보』, 1968.5.11.

59) 「편집후기」, 『신시단』 1권 2호, 1928.8.

「편집후기」의 일부분 역시 삭제된다. 이 시잡지의 3호에서도 「황야에 내리는 봄비」가 삭제 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이 매체가 검열 당국의 주목을 받은 것은 발행인이 『신소년』의 발행자이기도 했던 신명균이라는 점. 또한 엄홍섭, 김병호 등이 주요 창립인 중 한 사람이었고. 이 잡지에 이찬, 이학인, 안함광 등의 시가 실려 있다는 점. 그리고 엄홍섭과 함께 『군기』 사건의 주동자이기도 했던 민병휘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민병휘는 개성 프로연극 운동을 이끈 활동가이기도 하면서, 1931년 조선공산당공작위원회 사건과 연류되어 있다.⁶⁰⁾ 바로 이렇게 식민지의 공간을 넘어서려는 발간주체들의 야망이 검열 당국의 집중적 감시를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잡지 『조선시단』에는 이념적 성향의 인물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검열의 대상이 된 결과. 이 매체에는 이들이 지향했던 아지프로를 지향하는 프로시는 실리지 못한다.⁶¹⁾

이 시기 이 매체와 함께 『조선시단』 역시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된다. 황석우가 발간하는 잡지 『조선시단』은 1928년 창간되어 1934년 8호까지 발간하는 성과를 내었으나, 창간호가 압수된 이후 『월보』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3호, 4호(추가분까지) 6호, 8호가 검열 처분을 받았다. “조선시단 창간호는 성아(星兒)씨의 무산시가 당국의 귀회에 저촉되어 원고 전부를 압수당하였으므로 동사에서는 립시호 준비에 분망 중이라더라”는 기사⁶²⁾와 본 잡지의 〈여언〉에 “금호 창간호는 편자의 주의부족으로 말미암아 압수를 당하는 의외의 불상사”가 있었다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성아(星兒)는 임화의 필명이다. 여기서 압수된 시 텍스트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는 1928년 4월에 발표된 「젊은 순라(巡邏)의 편지」(『조선지광』)와 1929년 2월호에 발표된 「우리옴바와 화로」(『조선지광』) 사이에 창작된 것이다. 이를 볼 때, 경향성을 띠고 있었던 시로 추측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우리옴바와 화로」는 그 검열된 사례를 학습한 이후에 창작된 시로 그 결과 당시

60) 민병휘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민영, 「프로연극운동의 또 다른 지층 민병휘와 개성 대중극장」,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 참조.

61) 그러나 이 매체의 편집진은 이 매체에 ‘전면 삭제’등 검열의 증표를 그대로 살려두는 방법을 통해서 검열에 항의하는 동시에 그 삭제 표시와 남아 있는 제목, 시구가 어울려 사라진 내용을 연상시키는 미묘한 효과를 연출한다.

62) 「조선시단 창간호 압수」, 『동아일보』, 1928.10.09.

『조선지광』에서 텍스트가 검열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에도 『조선시단』은 3, 4호(추가분까지 2회), 5호, 6호, 7호, 10호, 20호, 1934년 4월에 발간된 마지막 호까지 거의 대부분의 호가 검열을 당한다.

4호 추가분에서는 「그 사람의 눈물」이라는 시가 삭제 처분을 받는데, 원문이 기록되어 있다. 그 원문은 “그 사람이 눈물이 많다고 해서 그 눈물에 침을 뱉고 그 눈물에 힘을 가하려는 자는 누구야. 한 번 그 눈물의 방울을 석대(石臺)에 놓고 조그만 망치로 때려부숴 보라. 그 씨 속에는 반드시 붉은 불씨가 튀어나올 것이다. 우주조차도 태어버릴 불씨가.”이다. 이 시에서는 “우주조차 태어버릴”, “붉은 불씨”라는 이념적 상징이 등장한다. 『조선시단』5호(1929.5.)에는 “무궁화/너의 이름은 무궁화이니 지나갔던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의 감춘 모습을 영원히 빛내리라.”는 구절이 삭제 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체가 검열된 것을 살펴 보면, 일단 황석우라는 요주의 인물에 대한 시찰이라는 목적과 더불어 이 매체의 이러한 민족주의적이거나 이념적인 지향이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시단』과 이 매체의 공통점은 신인 발굴이 그 주요 사업이라는 점이다. 엄홍섭은 『신시단』의 「편집후기」에 “경영난, 검열난, 원고난, 이 세 가지 난관을 등에진 조선의 잡지사업이란 그야말로 범의 소리와 가티 위험하다”고 한 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지가 조금이라도 우리 시단의 밝을 방향을 암시하였다면, 신흥시단건설의 임무를 보이었다면, 우리는 한업는 만족을 늦길 것”이라고 전한다. 이러한 점 역시 이 잡지의 방향성과 더불어 이 매체가 검열된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신시단』은 〈편집후기〉에 “호마다 역작을 만히 보내주시여 우리 문단에 신흥작가, 농민작가, 여류작가들의 활기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며 바랍니다”란 사고가 있다. 『조선시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전에 발간된 동인지들이 검열의 칼 끝에 수명을 다한 후, 독자투고를 매개로 한 등단 제도를 마련하였던 잡지 『조선문단』의 성공 이후 1920년대 중후반부터는 각 매체들이 재생산 제도를 수행한다⁶³⁾. 이러한 제도는 당대 주체들의 등단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면서 동시에 주체들을 모아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하는 데 활용된다. 시 전문 매체 역시 이러한 역할

6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현호, 「한국 근대문학, 재생산구조의 제도적 연원: 동인지(同人誌)에서 신춘문예로-등단제도의 권력적 변환」, 『대동문화연구』 5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참조.

을 수행하게 되는데, 검열 당국도 이를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1927년 신간회를 비롯하여 근우회, 조선 소년 연합회, 조선 농민 총동맹 등 대중 조직이 잇달아 결성되고 있었던 상황은, 그만큼 이념이 대중화되어가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독자 투고란은 그런 대중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공간이었고, 그만큼 검열 당국의 요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반영하듯, 『조선시단』에도 창간호가 압수된 후 발간된 임시호의 〈여언〉에는 “금호 창간호는 편자의 주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압수를 당하는 의외의 불상사”가 있었고, “금후에 있어서는 투고시 중 당국의 통과를 엿기 어려운 과격한 작품에 대하여는 본의는 아니지마는 게재치 못할 경우가 만히 잇을 줄 압니다”란 구절이 있다. 또한 〈사고〉에는 “학생시를 모집하기로 되얏사오니..(중략) 자연시에 한하여, 1안 16행 이내”라고 제한을 두고 있다.⁶⁴⁾ 이렇게 검열은 이 매체의 성격을 구성해 가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특히 『조선시단』에 실린 시들이 대부분 자연시 계열인 것은 물론 근대 문명 전반을 부정하는 아나키즘 철학이 ‘자연’에 대한 지향성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자연’이라는 매개를 통한 검열 우회적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⁶⁵⁾ 이렇게 독자투고 지면까지 철저하게 검열을 수행하면서 검열 당국은 한국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주조해 가고자 했다.

3. 검열의 ‘표준화’와 초점의 다변화(1931~)

- 검열 대상의 소멸과 내면화의 수사학적 성과

“그누가 불렀는고/빈터될 피놀애를/놀애야 업서지리/활자가 설업구나/이저
곳 깎기운자최/내맘더욱 울리네”⁶⁶⁾ 「시의 삭제를 보고」, 『동아일보』, 1930.1.2.

64) 「여언」, 『조선시단』 임시호(창간), 1928.11. 75면.

65) 노춘기, 「1930년대 황석우 시의 정치성과 탈정치성」, 『한국학연구』 47,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3.

66) 혈탄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시를 게재했던 시인이다. (「武人の 失戀」, 『조선일보』, 1925. 01.12./『조선일보』, 1925.1.19.; 「統軍亭에서」, 『동아일보』, 1929.11.10. 「歲暮」, 『동아일보』, 1930.12.25. 등.) 특히 〈동아문단〉란의 단골 필자로 1929년 11월부터 1933년 9월19일까지 꾸준히 10여 편의 시를 게재한다.

이 시는 시문학에 대한 검열 처분이 가장 많았던 시기이기도 한 1930년 1월 2일 『동아일보』에 실린 시이다. 혈탄이라는 필명의 작가가 창작하여 게재한 이 시에는 검열 처분이 얼마나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이 상황을 얼마나 독자들이 비통하게 느꼈는가가 잘 드러난다.

앞서 『신시단』과 『조선시단』의 검열처럼, 시 장르에 대한 검열 당국의 관심이 증대한 것은 시 창작 주체의 대중적 확산과 연관이 깊은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시가에 대한 검열 기록 『諺文新聞의詩歌』(1931)이다. 이 문건은 193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외일보』에 게재된 시가 중 검열 처분의 대상을 수록한 것이다. 이 문건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당시 이 세 신문에 수록된 전체 시가의 수 920편이다. 이 중 134편이 검열 처분 대상으로 이 문건에 수록(14%)되어 있으며 이 중 근대시와 동요/민요의 비율은 1:1.7로 후자의 장르가 더 많은 것은 이 장르가 독자투고에 유리한 장르였기 때문이다. 이 문건을 통해 당대 신문의 문예면을 살펴보면, 이 시기 시가 문학이 “신문이라는 근대미디어를 소통 매개로 하여 식민지 국민문화의 한 형식으로 대중화되고 있었다”⁶⁷⁾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이 시기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 등 저항 주체들의 사상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1931년 만주사변을 준비하는 통치 주체의 검거 활동 모두 극점이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대중들이 작성한 시가들은 이들의 민의를 드러내는 데 유효한 장르였고, 검열 당국은 이를 통제하는 동시에 그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⁶⁸⁾

검열 당국은 이 문건에 검열 처분을 받은 텍스트를 ①조선의 독립(혁명)을 풍자하여 단결투쟁을 종용한 것 ② 총독정치를 저주한 배일적인 것 ③ 빈궁을 노래하고 계급의식을 도발한 것 등 세 범주로 분류하고 기록하고 있다.⁶⁹⁾ 이 기준들을 살펴보면, 검열 당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조선의 독립”과 “계급의식”이다. 이

67) 한기형, 앞의 글, 129면.

68) 김동명이 첫 시집 『나의 거문고』를 내면서 『애가(哀歌)』라는 시를 삭제 당한 것도 1930년이다. 이후 두 번째 시집 『파초』에서는 “민족 및 사회주의 사상을 양양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방의 용사 간디에게 드림」(『신생』, 1931.4.)과 「폭풍우」(『신동아』, 1935.1.)가 빠지게 된다(이상경, 앞의 글, 414면).

69) 134편의 시가 자료 출처는 『조선일보』 78 편(28/ 14/36), 『동아일보』 32편(19/4/9), 『중외일보』 24(13/1/10)편이다. 한기형, 위의 글 참조.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저항시’와 ‘프로시’ 검열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이 원칙은 이 문건의 시 텍스트에 그대로 적용된다.

독자투고된 텍스트가 문건 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문건에 수록된 시가들은 시적 형상화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그 수사의 상징성 역시 그리 난해하지 않다. 계급적 성향을 암시하는 ‘공장’이나 해방(미래)을 암시하는 ‘아침’ 등의 시어가 등장하면 그 시가는 삭제 처분을 받아 이 문건에 실렸다. 당시 『중외일보』 기자(1930~1931)였던 시인 이하운의 회고에도 “한번은 역시 문예난에 실린 동요 중에 ‘총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역시 검열에 걸리고 말았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때의 검열은 글자 한 자라도 허술히 보아 넘기다가는 영락없이 꼬투리를 잡히고 마는 정도의 철두철미한 것”⁷⁰⁾이었다고 한다. 이 내용을 당대의 상황과 연관지으면, 그 검열의 강도와 밀도가 충분히 상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예시로 든 ‘총’ 역시 ‘투쟁’을 암시하는 패턴화된 언어로 창작되었거나 또 영락없이 검열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 장르에 대한 창작과 검열 처분이 이루어지는 동안, 프로시와 저항시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시들에 가해진 검열 표준이 드러나게 되면서, 창작 주체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듯하다. 이후의 검열 기록에서는 이러한 패턴의 시의 양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1930년 『학생』(1930.4.)지에 실렸던 박팔양의 시 「너무도 슬픈 사실- 봄의 선구자 ‘진달래’를 노래함」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검열 표준에서 벗어난 상징적 수사학의 모색이 시 창작 주체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1920년대 후반, 이념적 시문학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조선출판경찰월보』에 기록된 시 장르 검열 기록을 살펴보면, 그 처분 대상이 다소 변동되는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점차 아동대상 독물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면서 아동 대상의 시에 대한 검열 기록이 상당수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1928년 11월 28일 삭제 처분을 받은 『소년문예』 3호 원고에 실린 “조선의 소년이여”란 시어에서처럼 노골적으로 식민지 주체를 호명하고 그들의 투쟁을 암시하는 내용의 시가 그 예이다. 이후

70) “검열은 정치면이나 지방면 또는 체육면까지 아주 철저했으므로 이따금 ‘XX’표 또는 ‘OO’표가 활자화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 이하운, 「폐간만 지켜본 기사생활 6년」, 한국신문연구소(편), 『언론비화50편』, 한국신문연구, 1978, 82쪽.

같은 해 12월 28일 삭제 처분을 받은 『조선소년』3권2호의 소년시 「벗들이여」, 29년 1월 9일에 삭제 처분을 받은 노익형이 발행한 『조선동요선집』 중 「청도」와 「종소리」란 제목의 동요가 그 예이다. 이후 『조선출판경찰월보』에서 이러한 소년독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만큼, 아동 대상 시에 대한 검열 기록이 시 장르의 2/3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점은 아동 독물의 검열에 심혈을 기울였던 검열 당국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었다.⁷¹⁾ 이들 삭제된 아동시에는 노동하는 주체로서 계급적 색채가 강한 형상이 많다. 이러한 점은 당대 문단에서 아동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컸다는 점을 반증하는 동시에 그 내용 역시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를 볼 때 아동문학 장은 당대 프로문학 주체들이 검열을 우회하여 이념의 아지 프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마지막 진지였던 셈이다.

동요(동시)는 1920년대 잡지 『어린이』를 중심으로 발흥하기 시작한 근대적인 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장르였기 때문에, 당대에는 매우 전위적인 장르로 인식되었다. 윤석중, 박영종(박목월), 이원수 등이 그 창작 주체였으며, 당대 아동문학 운동은 출발부터 계몽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검열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 하에 놓이게⁷²⁾ 된다. 동요(시) 역시 예외적 대상이 아니었으며, 아동에 대한 계몽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난해한 상징적인 언술은 피할 수밖에 없다. 1930년 4월 『별나라』에서 삭제 처분을 받은 시 「이향의 봄」의 “우리들은 먼 나라의 친구 저들의 피오넬이 맞이하는 봄을 우리들도 맞이할 수 있을까. 열심히 전진하자.”는 시구절은 그 주제를 쉽게 상상하게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192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시 장르가 검열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당대 검열 당국이 시가 장르 전반을 그 대상으로 삼고 주체들을 총체적으로 압박해 들어갔음을 보여 준다.

71) 아동문학에 대한 식민지 검열 당국의 태도와 그 기준에 대해서는 문한별·조영렬, 「일제강점기 문학 검열의 자의성과 적용 양상-아동 문학 검열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고려대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20, 참조.

7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미선, 「일제 강점기 어린이문학 매체에 행해진 검열 실체와 문화 억압 양상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40, 한국아동문학학회, 2021; 이정석, 「일제강점기 『출판법』 등에 의한 아동문학 탄압 그리고 항거」, 『한국아동문학연구』 36, 한국아동문학학회, 2019; 최미선, 「일제 검열에서 드러난 어린이 사상 특징과 시대적 임무 고찰」, 『방정환연구』 7,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 2022 참조.

아동시 장르에 대한 검열 처분 기록은 1933년 4월 『신소년』 11권4호가 아동시 「바람이여 노래하라」 「여동생」으로 인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이후에 한풀 꺾이고, 이후 홍성은의 동요집 『동요』가 차압된 1935년 5월(『조선출판경찰월보』80호)이 『조선출판경찰월보』의 마지막 기록이다. 이러한 점 역시 카프 일원들에 대한 2차 검거라는 사건과 연동되어 벌어지는 검열 대상의 소멸과도 연관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1931년 7월엔 『카프시인집』이 “不許可 差押 및 削除”라는 행정처분을 받는데⁷³⁾ 이 시집에서는 임화의 시 「양말 속의 편지」 중 일부 삭제되어 있다. 시집에 실린 텍스트에는 매체본 원시에 있었던, 이 시 창작의 계기가 된 조선방직 파업을 의미하는 부제인 “一九三〇, 一.十五, 南竊港口의일”이 빠지고 감방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혁명가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하부 3연이 누락되어 있다.⁷⁴⁾ 『조선출판경찰월보』에 시 「우리는 우리는」 이외에 삭제 처분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시인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검열의 내면화라는 또 다른 국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IV. 결론-검열과 근대시문학사 구성의 역학

지금까지 1919~1935년까지 한국근대 시문학 장르에 대한 검열의 수행 원리와 변동 양상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1919년 문화통치로 시작된 1920년대 시문학에 대한 검열은 창작 주체와 검열자 간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시작된다. 애국계몽기와 무단통치기 제대로된 매체 발행이 거의 불가능했던 시기를 지나 문화통치기가 시작되었지만, 그 자유의 경간이 기대만큼 넓어진 것은 아니었다. 발행되는 매체 수가

73)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기록에 의하면 <카프시인집> 중 「우리들은 우리들은」이란 시가 31년 7월 10일자에 전면삭제된다. 이후 1933년에 3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차압되었다. 조선총독부 도서관, 『조선출판경찰월보』제35호, 제54호, 제57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74) 이러한 점은 산책자, 「양말 속의 편지」해설, 네이버 블로그 <임화와 더불어>, 2021.7.16.(https://blog.naver.com/shdw324/222434168263)에도 잘 설명되어 있다. 박지영, 앞의 글, 51면 참조.

적었기 때문에 그 이념적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매체는 전방위적으로 검열을 받았다. 일간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과 문화적 민족주의를 표방한 『개벽』이나 이념적 성향의 매체 『신생활』 등의 매체는 물론 순문학의 기치를 내걸었던 동인지들까지 모두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검열 당국은 ‘조선’이라는 왕조와 ‘식민’이라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기호들을 검열해 가면서 점차 저항시에 대한 검열 기준을 수립해 나간다. 그러다가 1920년대 중반 이후 프로시의 시대에는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경향시들을 대중적 공감대의 형성 가능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검열해 나가면서, 그 경향성을 조율해 나간다. 그러는 와중에 프로시는 뼈다귀시나 감상적인 단편서사시 계열로 구성되어 가게 된다. 그리고 1920년대 중후반 이후 이념이 지식으로 보편화되고 문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독자투고란에 대한 검열이 강화된다. 기성 시인들에 대해서는 시집 출판에 대한 검열을, 대중들에 대해서는 매체 투고란에 대한 검열을 통해서 이념과 문학에 대한 저항적 기운을 통제해 나간다. 또한 아동문학이나 민요(한시) 등 전통 시가 장르에 대한 검열로 그 초점을 다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시 장르 검열은 전방위적으로 확장되면서 시 창작 주체들에게 검열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 이념적인 시의 경우도 전향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점차 시 장르 검열의 대상이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현재의 장르적 전범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열의 결과 그들이 억압했던 이념적 경향시와 저항시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임화의 『현해탄』 등을 통해서 프로시는 또 다른 상징적 수사학을 모색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혁명적 순간을 전유하기도 한다. 저항시 역시 이육사와 윤동주라는 식민지 내부에서 실존하지 못했던 주체들의 언어를 통해서 고귀한 상징성을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검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문학 텍스트의 진정한 생명력이다.

참고문헌

- 김성운 편, 『카프시전집 I II』, 시대평론, 1988
- 김창술, 최명표 편, 『김창술시전집』, 신아출판사, 2014
-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 『현대문학』, 1959.11
- 심훈, 『그 날이 오면-심훈문학전집1』, 차림, 2000
- 엄홍섭, 「나의 수업시대 작가의 올챙이 때 이야기(8)」, 『동아일보』, 1937.08.03
- 백순재, 「측면에서 본 신문학 60년(11)-검열과 필화」, 『동아일보』, 1968.5.11
- 정진석 편,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2013
- 정진석 편, 『(日帝시대 民族紙) 押收기사모음 I, II』, LG상암언론재단, 1998
-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카프시인집』, 집단사, 1931
- 주요한 「기자생활의 추억(속)」, 『신동아』, 1934.6
- 한기형, 『미친 자의 칼 아래서 1-식민지 검열 관련 신문 기사 자료』, 소명출판, 2017
- 현인, 「문예시평-두 가지 이야기」, 『비판』, 1932.3, 95~96면
- 「시집 열광 불허가」, 『조선일보』, 1926.12.05
-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諺文新聞의 詩歌』(조사자료 제20집), 1930.1.~3
- 朝鮮總督府, 『朝鮮出版警察月報』 제2호~123호<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 한용운, 『님의 침묵』. 회동서관(1926, 아단문고 소장본)
- 『소년』, 『매일신보』, 『창조』, 『폐허』, 『백조』, 『폐허 이후』, 『장미촌』, 『개벽』,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조선시단』, 『신시단』 등 신문/잡지
- 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2011
- 김영애 외, 『개작과 검열의 사회·문화사』, 박문사, 2022
-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동국대출판부, 2010
- 문한별, 『검열, 실종된 작품과 문학사의 복원』,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17
- 이승희, 『숨겨진 극장 : 식민지 흥행장의 치안과 통속』, 소명출판, 2021
- 정근식, 한기형, 이해령, 고노 켄스케, 고영란, 『검열의 제국-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 정우택, 『황석우 연구』, 박이정, 2008
- 정진석,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일본의 침략과 열강세력의 언론통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최동호, 『20세기 한국필화문학연구』, 서정시학, 2006
-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 한기형, 『식민지 문역-검열/이중출판시장/피식민자의 문장』, 성균관대출판부, 2019
- 한만수, 『잠시 검열이 있겠습니다-먹칠과 가위질 100년의 사회사』, 개마고원, 2012
- _____, 『허용된 불온-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학』, 소명출판, 2015
- 김병익, 「문단의 반세기(21) 검열과 필화」, 『동아일보』, 1973.5.11.
- 김영석, 「無窮花(國花)에 對한 小考」, 『논문집』 16, 대구교육대학교, 1980
- 김영순, 「매일 신보」 어린이란 “전래동요모집”을 통한 독자와의 소통과 김소운, 『동화와 번역』,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7
- 김용직, 「〈백조〉 고찰」, 『국문학논집』 2,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1968
- 김현주·조정윤, 「『신생활』 이후의 신생활사-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계열 대중출판운동의 편린」, 『대동문화연구』 12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2
- 노춘기, 「1930년대 황석우 시의 정치성과 탈정치성」, 『한국학연구』 47,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3
- 문병옥, 「白潮」同人의 詩意識에 관한 考察(I)」, 『논문집』 13(1), 성심여자대학교, 1982
- 문한별, 조영렬, 「일제강점기 문학 검열의 자의성과 적용 양상-아동 문학 검열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20
- 박지영, 「프롤레타리아의 재현(불)가능성-검열과 한국 프로시 전범의 형성」, 『반교어문연구』 65, 반교어문학회, 2023
- 박현호, 「한국 근대문학, 재생산구조의 제도적 연원: 동인지(同人誌)에서 신춘문예로-등단제도의 권력적 변환」, 『대동문화연구』 5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 _____, 「문화정치'기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논리-1920년대 민간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 박현호·손성준, 「한국 근대문학 검열연구의 통계적 접근을 위한 시론-『조선출판경찰월보』와 식민지 조선의 구텐베르크 은하계」, 『외국문학연구』 38,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10
- 박현수, 「1920년대 전반기 미디어와 문학의 교차: 필화사건, ‘문예특집’, ‘문인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74,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20
- 백순재, 「측면에서 본 신문학 60년(11)-검열과 필화」, 『동아일보』, 1968.5.11
- 손성준, 「검열, 그 이후의 창작: 심훈의 장편소설로 본 식민지 작가의 검열 대응」, 『동악어문학』 87, 동악어문학회, 2022
- _____, 「代理戰으로서의 세계문학: 검열된 『김영일의 死』와 번역된 『산송장』」, 『민족문화사연구』 65, 민족문화사연구소, 2017
- _____, 「번역문학의 再生과 反검열의 앤솔로지: 태서명작단편집(泰西名作短篇集)(1924) 연

- 구], 『현대문학의 연구』 6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 손지연, 「식민지 조선에서의 검열의 사상과 방법-검열 자료집 구축 과정을 통하여」 『한국문학연구』 32,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7
- 박현호, 「문화정치」기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논리-1920년대 민간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5
- 엄국현, 「식민지시대 검열제도와 『님의 침묵』의 수사학」, 『한국문학논총』 51, 한국문학회, 2009
- 유병관, 「이상화의 시에서 ‘생명(生命)’-대정(大正)기 일본의 생명주의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와 예술』 30,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19
- _____, 「정열과 반역의 시, 이상화-아나키즘의 자장」, 『반교어문연구』 36, 반교어문학회, 2014
- 이민영, 「프로연극운동의 또 다른 지층 민병휘와 개성 대중극장」,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
- 이민주, 「일제 검열에 대한 조선어 민간신문의 대응양상 연구」, 『한국언론학보』 62(1), 한국언론학회, 2018
- 이상경, 「『조선출판경찰월보』에 나타난 문학작품 검열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17), 2008
- 이종호, 「『장미촌』의 사상적 맥락과 정치적 함의 -『대중시보』와 겹쳐 읽기-」, 『반교어문연구』 51, 반교어문학회, 2019
- _____, 「『청춘(靑春)』이 끝난 자리, 계몽과 개조의 사이에서 -잡지 『삼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 이혜령, 「식민지 검열과 식민지-제국 표상-『조선출판경찰월보』의 다섯 가지 통계표가 말해주는 것」, 『대동문화연구』 7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 장 신, 「1922년 잡지 신천지(新天地) 필화사건(筆禍事件) 연구」, 『역사문제연구』 13, 역사문제연구소, 2004
- _____, 「1926~1932년 월간 『朝鮮之光』의 편집과 경영」, 『대동문화연구』 12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3
- _____, 「1920년대 조선의 언론출판관계법 개정 논의와 ‘조선출판물령」, 『한국문화』 4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 _____, 「『週報 朝鮮之光』의 발굴과 몇 가지 문제」, 『근대서지』 41, 근대서지학회, 2011
- _____, 「1927~1928년 조선인의 출판활동과 신문」, 『근대서지』 6, 근대서지학회, 2012
- _____, 「1930년대 초 『조선일보』의 부침과 잡지 『新朝鮮』」, 『근대서지』 8, 근대서지학회, 2013

- 정근식, 「식민지적 검열의 역사적 기원-1904~1910년」, 『사회와 역사』 64, 한국사회사학회, 2003
- _____,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를 통하여」, 『대동문화연구』 7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 _____, 「식민지 전시체제하에서의 검열과 선전, 그리고 동원」, 『상허학보』 38, 상허학회, 2013
- _____, 최경희, 「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1926~1929」, 『한국문학연구』 30,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6
- 정우택, 「韓國 近代 自由詩 形成過程과 그 性格」,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조남현, 「〈사회등(社會燈)〉가사(歌辭)의 풍자방법(諷刺方法)」,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1976
- 조종엽 기자, 「염상섭이 막장 소설 쓴 이유는? 일제 검열 연구한 한기형 교수」, 『동아일보』, 2019.7.10.((<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0/96411607/1>))
- 채 백, 「애국계몽운동기 일제의 언론통제와 한국언론의 대응-노일전쟁부터 강제병합까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2), 한국지역언론학회, 2010
- 채호석, 「검열과 문학장: 1930년대 후반 한국문학에서의 검열과 문학장의 관계 양상」, 『외국문학연구』 27,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07
- 천영숙, 「1930년대 오장환 시에 나타난 이중언어성과 검열에 대한 고찰」, 『한남어문학』 27, 한남어문학회, 2003
- 최수일, 「1930년대 『동아일보』의 검열 사례 집계와 그 의미(1931~1936)-『조선출판경찰월보』,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모음』과의교차 비교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67, 상허학회 2023
- 한기형, 「식민지검열의 한문자료 통제-조선총독부 도서관 간행물의 검토」, 『민족문화』 40, 한국고전번역원, 2012
- 한만수, 「1930년대 문인들의 검열우회 유형」, 『한국문화』 3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 _____,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비교연구의 필요성」, 『比較文學』 41, 한국비교문학회, 2007
- _____, 「만주침공 이후의 검열과 민간신문 문예면의 증면 1929~1936」, 『한국문학연구』 37,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
- 한상철, 「저항과 검열의 시대, 제국의 금서들 1-김억의 『해파리의 노래』와 우치노 겐지의 『흙담에 그리다(土牆に描く)』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77, 한국비평문학회, 2020

Principles and changes in censorship of modern Korean poetic genres(1919~1935)

Park, Ji-young

This study discusses the principles of censorship and the changes in the genre of modern Korean poetry and literature from 1919~1935. First of all, this study traces the changes in the censorship pattern that occurred during the period from the Cultural Rule immediately after 1919 to Closing of the Magazine 『Gaebyeok 開闢』 Poetry in August 1926, and secondly, from 1926 to 1935, when 'Bone Poetry' and other Proletarian poetry actively appeared on the pages after the formation of KAPF. In addition, the process of standardization of poetry censorship standards around 31 years ago,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change in the poetry censorship system, was examined. From 1919 to 1926, when the publication of 『Gaebyeok 開闢』 was abolished, it was an era of "confrontation" between the censorship authorities and the creative entities. From 1926 to the early 1930s, in the era of prossy, censorship sought to tame the perceptions of the creative subjects with patterns of bone poetry and sentimental epic.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censorship of readers' submissions, the poetic aspirations of the masses, which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are blocked. As a result, in the early to mid-1930s, the censorship standards were "standardized" through documents such as the 『諺文新聞의 詩歌』, and at the same time, the overall perception of the subjects of poetry creation was comprehensively regulated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the censorship targets and focus on various genres such as Children's song(poems), folk songs, and Korean poems. However, even in the midst of such intense censorship, internalized procedural poetry and resistance poetry that has acquired a high degree of symbolism emerge, and this is the true vitality of literary texts that we can see through the study of censorship. In the midst of this dynamic confrontation between censorship and the subject, the war crimes of the poetry genre currently discussed in the history of Korean poetry and literature have been constituted.

한국 근대 시문학 장르에 대한 검열의 수행 원리와 변동(1919~1935)

Key Words : Korean modern poetry, genre, censorship, resistance poetry, poetry, genre model

